

고대 인도의 비마나

옛날 사람들의 비행노력 ⑤

가장 오래된 비행 전설

세계중에서 공중을 자유자재로 비행하는 신들의 신화라든가 전설을 가지지 않는 고대문명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와같은 예외소드가 가장 풍부한 곳은 아마도 고대 인도의 문헌일 것이다.

기원전 1200년경 성립한 인도 최고의 문헌 「리그 베에다」는 바라문교의 성전이나, 리시(성신)가 신비적인 영감에 의해 감득한 계시임으로, 술타(천계(天啓)문학)라고 불리고 있다.

인도인들은 모든 진실은 「리그, 베에다」안에 선회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같은 것조차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럼으로 비행기가 등장해도 놀라와 할 정도는 아니다.

「리그, 베에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무용신(武勇神)인드라는 두마리의 명마 활리가 끌고가는 전차를 타고 공중을 달려, 아스라(악마의 무리)들과 싸운다.

태양신 슬리야는 일곱마리의 황금빛 말이 끄는 차를 타고 하늘을 달린다. 바람의 신 비유는 두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빛보다 빠르게 공중을 달리며 천둥과 같은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다.

이들 비행기체는 당시의 인도, 알리아인이 구사하고 있던 경쾌한 전차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아슈빈의 쌍둥이신의 교통편은 특이하다. 이 짧고 아름다우며 빛이 충만하고 민첩한 쌍둥이의 신은 사람들을 재앙에서 구제하고 맹인의 눈을 고치거나 노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등 기적적인 의료를 한다. 말하자면 신들의 의사다.

아슈빈 쌍둥이신이 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는 각 부분이 셋으로 된 특별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셋의 자리를 지니고 삼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 바퀴를 가지고 있고 경쾌하게 달리는 차를 타고 온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보다도 빠르고, 바람과 같이 질주한다.

이 하늘을 나는 차는 비행정과 같이 물에 내릴 수도 있고, 조난을 당하여 바다를 표류하고 있던 부주왕의 구출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리그, 베에다」의 기술은 단편적이며 이 하늘을 나는 수레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회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도의 2대 서사시의 하나로서 유명한 「라마야나」는 환상적인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일종의 비행차〉

스토리로 몇천년에 걸쳐 인도사람들을 열광시켜 왔다. 주인공 라마는 인도북부의 코살라국의 왕자이나 계모의 음모에 의해 탄다카의 삼림에서 추방생활을 보내야만 했다. 아름다운 처 시타도 라마를 따라 갔다. 그런데 라찰족의 왕 라바나는 시타를 유괴해 가지고 공중을 비행하는 비머나(수래)로 랑카(실론섬)국에 데리고 가버렸다.

유괴된 시타를 찾아 남으로 향한 라마는 원숭이의 왕 크리버를 도와 지배권을 되찾아 준다. 원숭이의 왕은 가신인 허누마드(별명 허누멘)에게 시타의 행방을 수색시킨다. 시타가 랑카섬에 유괴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낸 허누마드는 대해를 날아서 랑카섬에 건너간다. 허누마드는 일단 체포되었으나 탈출하여 랑카의 도시를 불태워 버린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날아서 되돌아와 라마에게 시타의 소식을 전한다.

라마의 요청으로 원숭이군은 바다위에 다리를 놓아 랑카섬으로 건너가서 수도를 포위했다. 여

기에 대해 러버너는 공격의 명령을 내렸으며, 싸움이 시작된다. 마침내 러버너가 스스로 싸움터에 출전하여 라마와 일주야에 걸친 일대 일의 싸움을 한다. 신들의 원조를 받은 라마는 겨우 열개의 머리를 가진 러버너를 때려잡는데 성공한다. 시타를 구출한 라마는 러버너가 타고다니던 하늘을 날오는 수래 푸슈버커로 고국에 귀환한다.

이 푸슈버커라는 비머너는 원래 신들이 타는 수래로 러버너가 탈취해간 것이었다. 푸슈버커는 꼭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으며, 백조와 같이 빠르게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었다. 2층의 원형을 한 항공기로 현창(舷窓)과 돛이 있었다. 소음을 내고 움직이며, 그 소리는 구름속에서 들리는 뇌성과 닮았었다. 바로 20세기의 UFO 보고에 등장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형상이다.

푸슈버커는 「바람의 속도」로 비행하고 대해가 작은 웅덩이로 보일만큼의 높이까지 상승하고, 공중에서 정지할 수가 있었다. 상

공으로부터는 해안선이나 강의 델타가 보였다고 한다.

동양의 신화나 전설에는 괴조라든가 용, 날개가 있는 말, 마법의 주단 등, 인간이 하늘을 날아가기위한 수단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만큼 비행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 한편 「라마야너」라고 불리우는 「마하바아라다」에도 측면이 첼로 되어 있으며, 날개로 장식된 「하늘을 나는 전차」가 등장한다. 공예신인 피슈바카르멘이 신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마야가 악마들의 대표로 각기 하늘을 나는 수래를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마하바아라다」는 아득한 태고 때 실제로 있었던 것같은 큰 전쟁을 테마로 하고 있다. 바라타족의 산타누왕의 혈통이 끊어질 무렵, 한사람의 바라문이 초청되어 두사람의 왕비와의 사이에 관도우와 트리덜러슈트라 라는 두 왕자를 얻어 혈통을 유지한다. 관도우는 젊어서 죽으나, 관더버라고 불리우는 5명의 왕자를 남긴다. 한편 트리덜러슈트라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으나 카우러버라고 부르는 100명의 왕자를 두었다. 이 관더버와 카우러버 사이의 전쟁이 「마하바아라다」의 클라이맥스이다.

암나강과 갠지스강에 싸여진 드어브지방의 쿨·크세트라에서 양군이 대치하여 전 인도를 휩쓸 전면전쟁으로 발전한다. 18일간에 걸친 전투로 카우러버군은 전멸하고, 관더버군도 피슈누신의 화신인 콜리슈너와 다섯왕자를 남기고 전멸한다.



〈라마야나에 나오는 라이바나왕〉

「마하바이라다」의 제7편에 해당되는 「드러너 팔번」에는 꼭 현대의 핵무기와 같은 묘사가 있다.

카우러버군의 왕자 드러너의 아들 아슈벳트멘이 비머너에 타고 수면에 머물러, 신들조차 맞겨루지 못하는 아그네어의 무기를 관더버의 군세에 사용한 것이었다.

「연기를 수반하지 않는 불을 놓는다. 번쩍번쩍 빛나는 빛의 무기를 사방에 들썩우기 시작했다. 무수한 화살이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그 화살의 다발은 빛나는 유성과 같이 낙하하여 빛이 되어 적을 포위했다. 여러 각도로부터 불이 붙은 화살이 심한 바람과 함께 내리 쏟아져 나왔다. 뇌성보다 격렬하게 폭발한 이 무기에 적의 전사들은 화마에 불타버린 나무와 같이 넘어져 가고 있었다.」

참으로 굉장한 위력으로 현대의 핵무기도 무색하다. 「마하바이라다」의 전투장면에는 이와같은 묘사가 도처에서 나타난다. 도저히 고대의 전쟁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다.

제2차대전에서 항공기나 무기의 발달을 목격한 러마찬드라 디시털은 그때까지 상상의 산물이라든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정리되어 왔다. 「마하바이라다」의 기술이 바로 현실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1945년에 「고대 인도의 전쟁」이라는 저서를 출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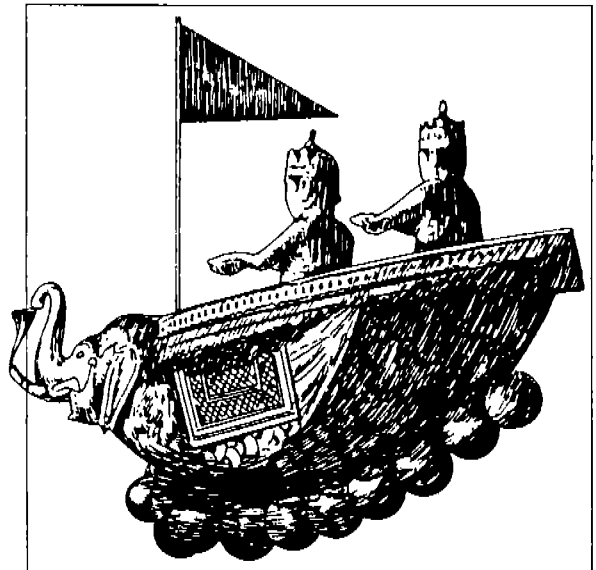
이 저서 속에서 디크시털은 보저왕이 힌두의 고대문헌을 수집하여 11세기에 편찬한 「써머런가나, 스트라다아라」야말로 고대 항

공기에 관한 정보의 보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보저왕은 인도 중앙부의 파라말라조의 군주로서, 1018년부터 40여년 군림했다. 위대한 무인으로서, 예술, 학문을 비호하고,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으며 인도에서는 지금도 모범적인 군주로서 숭배받고 있다.

「써머런카너 스트라다아라」는 「실파 샤스트러」라고 총칭되는 인도의 조형예술에 관한 논저의 하나로 오로지 기계장치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그 제31장에서 비머너에 대해서 「자력으로 새와 같이 비행할 수가 있는 항공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머너는 가벼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전체는 단단하고 견고하며,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하고 있다. 내부에는 수은의 엔진을 설치하고, 그 밑에 철제의 가열장치가 있다. 화려한 2개의 날개로 대기속을 날아간다. 원거리를 비행하며 여러사람을 태울수가 있다. 이 기계에는 철이나 동, 납 등의 재료도 사용되고 있다.」

일견, 간단한 구조 같지마는, 비머너의 건조에는 많은 비용을 소요로 하며, 그것을 소유하는 것



〈하늘을 나는 비마아나의 그림〉

은 주로 귀족계급의 특권층이었다고 한다. 비머너는, 비머너, 그리허라고 불리는 격납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전쟁이나 여행, 스포츠등,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타입의 항공기가 사용되었다.

또 비머너의 동력원은 「수은에 잠재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하늘을 날아가는 수레의 지식을 함부로 사용하여 재앙을 가져오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내용과 기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써머런카너 스트라다아라」는 신비스러운 종교문헌이 아니다. 그래도 신화와 나눌수가 없을만큼 영겨져 있어 실제로 고대 인도에 항공기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이것만으로 실증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순수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경탄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